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 백천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주지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생전에 이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나 하는 데 대해서 좀 거론하려고 합니다.

첫째, 삼천 년 전이든 오천 년 전이든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나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는 방도와 영원하다는 자체를 알려 주셨죠. 그리고 나로부터 하라는 말씀도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마음과 과학의 발전이 되지 않았을 때라 절 일도 와도 나타나 소달구지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희들도 그렇게 도와라. 낙타도 이렇게 절 일을 도와서 좋은 일을 하고 소도 달구지를 달고 일을 해서 도와준다. 그렇게 아니 하면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모두 그렇게 아니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때 당시의 시절에 맞게 방편으로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팔만대장경의 말씀도 지금 시대에 맞게 용어를 변경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토론해야 됩니다. 안 그렇까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해서 똑같이 말을 할 게 아니라 뜻은 같고 모든 게 다 같아도 방편의 용어는 바뀌서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에 트럭이나 짐차나 비행기나 이런 걸로 나를 것을 "소달구지예다 해라." 이 런다면 말이 됩니까. 또는 "낙타도 도와라."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 자체, 그 이름 자체의 용어를 바꿔서 지금 시대에 맞게 대치해서 붙자 여러분이 다 같이 이렇게 토론해 가면서 연구해 가면서 마음의 발전과 더불어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생활을 개발하면서 바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 법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생활이 법이지요. 나를 빼놓고 생활 떠나서 부처님 법이 어디 따로 있었습니까? 그러니만큼 첫번째로 그런 거를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벽을 치면 붓장이 울리듯이 이런 한마디에 서로서도 마음이 전달이 돼서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가신다면 더욱더욱 좋고요.

둘째, 우리가 네 종교 내 종교 하고 야단들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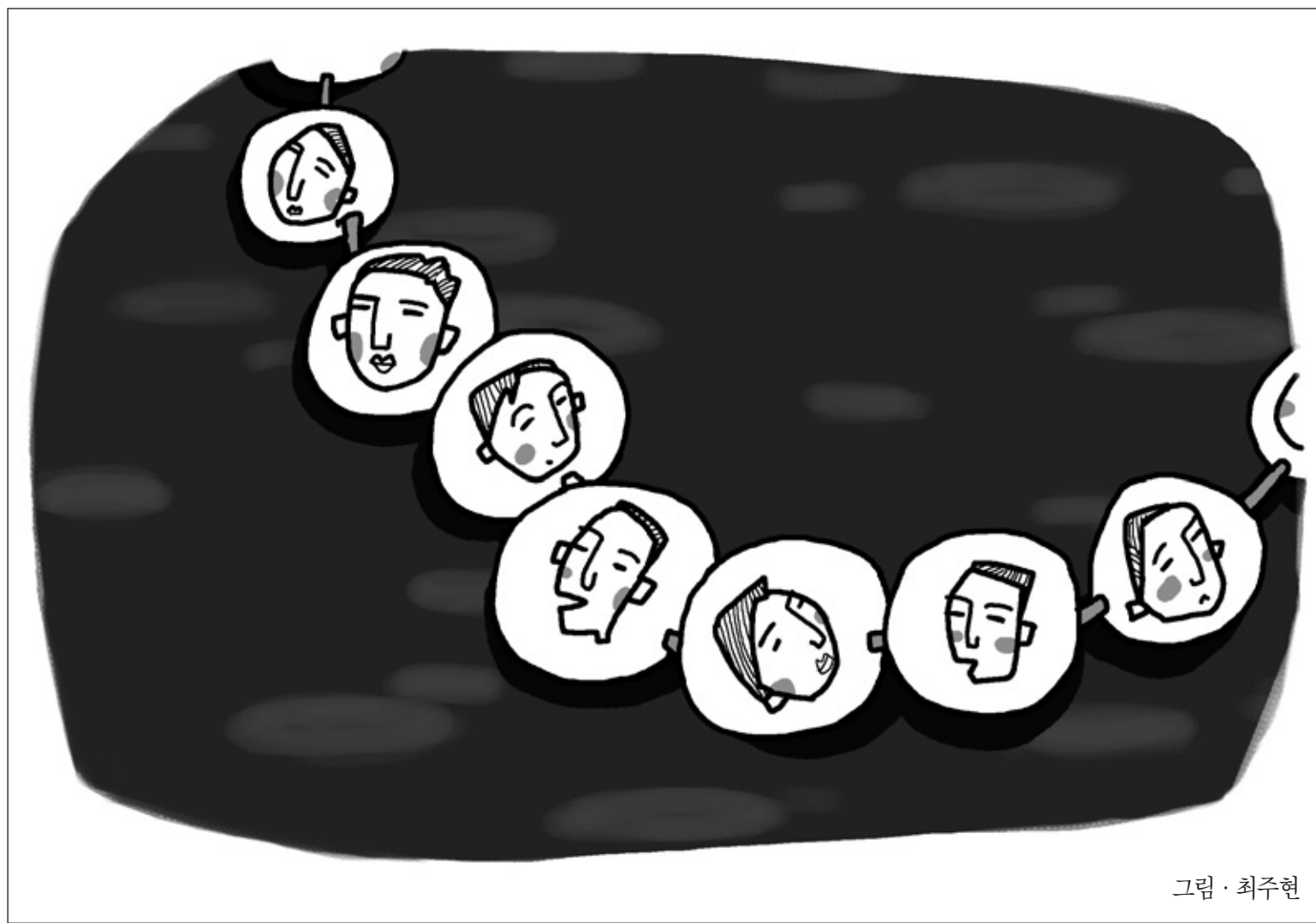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데 말입니다. 네 종교가 틀리느니 내 종교가 잘 하느니 하고 야단들인데, 우리 지구가 버스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버스 안에 다 타고 있다면 그 버스 안에서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저리로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안에서 이거는 내 결상이니 내 결상이니 하고 싸우는 격이나 똑같습니다. 어디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버스가 다 한 버스가 아닌 버스가 아니고 생활 자체도 하나로 돌아가고 사람 마음도 하나로 돌아옵니다.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가 다 같습니다.

비유한다면 염주줄은 마디가 없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염주알은 각각 다 다릅니다. 염주알이 다 떨어져서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와 같지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

그럽고 넓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습에 의해서 습성에 의해서 뛰어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눈과 귀에 의해, 무의 세계 정신세계를 보지 않고 물질세계만 보니까 '요거는 요렇게 해서 아니 되고, 요거는 요렇게 해서 되고 요거는 요렇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 하고 결론을 짓는 마음, '아이구! 요거는 간단하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졌던 말입니다. 생각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천리만리도 갈 수 있고 땅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물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우주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고 바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월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렇게 큰가 하면 없고 없다고 보면 크고, 큰가 하고 보면 작고 작다 하

고 보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묘한 묘법입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셋째는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체 물질이 다 지수화풍입니다. 태양까지도 은하계까지도 모든 일체가 지수화풍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수화풍이니까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죠?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아니라면 어떻게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지수화풍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으니까 상대성 원리도 있고 세상도 벌어졌고 종교도 있고 성스러운 시대 성인들도 있는 걸 알았고 부처님도 믿게 됐고 아,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체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무효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수화풍

이 주춧돌처럼 아주 바탕이 돼서 있습니다. 바탕이 돼서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본래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수화풍이 있는 까닭에 우리가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을 총만히 쓸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수화풍이 그렇게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다 갖추어 가지고 쓸 수 있게,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작고 큰 거를 가려서 내가 타치는 대로 쓸 수 있게끔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몸뚱이가 나왔기 때문에 내 마음의 발전에 의해서 다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발전소가 있고 모두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전력을 끌어 쓸 수가 있고 불도 켤 수가 있고 밥도 해 먹을 수가 있고 공장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근기에 따라서 바로 그 전력을 끌어 쓸 수 있는 용역이 있다. 그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전력은 본래 있는 것입니다. 자력 전력 통신력 광력, 이게 본래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없다. 나는 중생이다. 나는 그렇게 뛰어넘을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관습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데에 그것을 용도에 따라서 큰 공장을 돌리거나 가정에서 가정살이를 하거나,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용량을 끌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력을 끌어 쓰듯이 여러분 마음 차원의 그릇대로 다 내 마음속 자기발전소에서 그렇게 끌어 쓸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현실의 발전소는 꺼지고 켜지는 게 없잖아 이 소립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부터, 나부터 알아야 가설이 된 줄도 알고 바로 자기발전소가 있는 줄도 알고 우주와 인간의 근본이 직결이 돼 있는 줄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게 전력 가설이 돼 있듯이 전부 가설이 돼 있는 거를 내가 알게 된다

☞ 26면으로 계속

## (주)더나인 칼라 단청 사업단

# 옷칠 단청

천년보장 옷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옷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폴,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옷칠 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은, 일섭, 유일스님 문중의 수석막제자

불광미술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단청, 행화, 개금  
3절장인

만성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http://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의 : Tel. 02)3147-2020

###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 내가 싹이라면 제 뿌리를 믿지 어디를 믿습니까!

25면에서 계속

이겁니다.

불교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알기 쉽게 말해서 불(佛)이라는 것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지수화풍을 비롯해서 일체 만물만생의 바로 그 물질이 전부 불입니다. 불! 생명이 말입니다. 생명은 불이요, 하나도 빼놓지 않는 불이요, 또 교는 말과 말이 통하고, 차원대로 모습이 다르지만 차원대로 다 자기 말들을 하고 돌아갑니다. 통하고 돌아가요. 일체가 뜻으로 통하고 통신으로 통하고 말로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 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불교가 아니고 머리 깎은 사람만 불교를 숭상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우주 전체가 불교니까요. 어느 종교도 불교 안에 있는 거지 불교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 깎은 사람들이 목탁이나 치면 불교인 줄 알지 마시고, 불교라는 것은 그렇게 위대하고 광대하고 그대로 여여하면서 진리인 것입니다. 불교라는 건 이름일 뿐이지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도 포함해서 일체가,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 불교는 나부터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있어야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대 성인들, 달마 대사도 그랬거니와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이름은 다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생각하죠. 모든 사대 성인들이 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했습니다. 상대의 고깃덩어리를 믿지 마라. 네 차원의 참뿌리를 안다면 일체 만물의 뿌리를 네 한 뿌리로서 오고 감이 없이 바로 알지만, 그렇게 너부터 알므로써 그 안테나에, 즉 말하자면 주장자에 일체제불의 주장자가 전부 한 주장자가 되는 것이며 찰나찰나 나고 들고 나고 들고 하는 것이다. 천백억화신으로서 나고 들면서 일체 만물만생의 차원대로 또는 모습대로 안이 되시는 게 없이 응신으로서 나투시면서 응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나를 모르고는 일체가 돌아가는 도리전의 이치를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자비를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 사랑 하고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사랑 소리를 자주 하는데, 허허하...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바로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진실로 곤충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돌아간다는 사실과 더불어 널리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돼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저승과 이승이 둘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극락세계가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한생각에 지옥이요 내 한생각에 바로 승천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시다.

여러분이 이 한마음 도리를 공부하면서 체험도 하고 감응이 되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짐작이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물리가 터지는 거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모두가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싹이라면 뿌리가 있는데 그 싹이 뿌리를 믿지 어디를 믿습니까? 네? 탄 나무를 믿고 탄 이름을 믿고 탄 평상을 믿는데 에너지가 자기 나무로 가겠습니까? 그건 공덕이 하나도 없어요. 제 뿌리에 서만이 제 나무를 푸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 뿌리에서만이 너그럽고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거고 물리가 터지기도 하고 깨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모든 에너지를, 즉 말하자면 철분 황분 흙의 지분 등 모든 것을 위로 올려보내고, 나무는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또 내려보내고, 인간의 정맥과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해서 자기 나무를 푸르게 살게 하고 깨치게 하고, 문 없는 문을 넓게 하고 빗장 없는 빗장을 쥐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있거든 내가 항상 바깥으로 찾았다면 아무 공덕도 없고 이득도 없고, 만 날 깎달리다가 이 차안 속에서, 즉 말하자면 어항 속에서 고기가 바깥으로 못 나가듯 그렇게 피안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긴데, 차안의 세계와 피안의 세계가 백자장 하나 사이 안 되는 것을, 한 찰나도 안 되는 것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관습 때문입니다. 먹어 보지도 못했고 맛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수박이라면 과감히 그냥 동강을 내서 맛을 보고 씨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그 씨를 되집어서 고다음 해에 수박은 되남고 되남고 해서 영원한 진리의 수박이라는 걸 알게끔 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부처님 법이 항상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물질적인 육신을 생각하고 물질적인 걸 생각하니까,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저 강도 건널

수 없고 또 불바퀴를 건너뛺 수도 없고 마구니 소꿌을 건너갈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왜 마음대로 못 삽니까? 왜 마음을 마음대로 못 삽니까? 참 이상하죠? 그 끈에 매여서 말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다 체가 없다 그래도 널리 생각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스님,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해도 “알았어.” 이러면 죽하지 “나는 거기 강을 못 건너간다.” 이래야 되나? 몸체는 강을 못 건너갈지언정 마음이야 어찌 못 건너겠습니까? 모두가 여러분이 살아온 관습이요 여러분이 살아온 육신입니다.

여러분이 관리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소임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공생·공심·공용·공체·공

됩니다. 볼 때는 것도 그렇고 향 올리는 것도 그렇고 다기 물을 떠 놓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공양입니다. 마음의 공양! 부처도 귀신도 중생도 모두가 들어 아닙니다. 내 한생각에 귀신을 만들고 내 한생각에 부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써 봤자 자기만 손해지 뭐 이익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하고 내려가야죠. 염주, 목주 이런 거 모두 있죠? 기독교 믿는 사람 가톨릭 믿는 사람도요. 나도 가톨릭교를 좀 다녀 봤으니까 압니다. 그런데 가톨릭교와 기독교와 알라신교와 티베트 불교와 모든 게 들어 아니예요. 근본 내 뿌리부터 알아라 하는 것은... 목주나 염주를 보셨죠? 백팔 염주를 백팔 번뇌라고 하는데 그건 생활이예요. 염주 알은 여러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죠. 염주줄은 바로 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생활하는 도리를 그대로 염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시발점에서 염주를 굴리고 있는데 종점으로 왔단 말입니다. 종점으로 와서 보니까 시발점과 종점이 교차로가 됐단 말이지요. 교차할 수 있는 그 교차로가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생과 사예요. 그래서 생과 사는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모습이라는 것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교차로에서 교차를 하는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그 모습을 쓰고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다시 오늘로 올 때 또 모습을 쓰고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두꺼비, 뱀, 가지각색으로다가 다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으로 있다가 돼지같이 살았으면 돼지 모습으로 태어나겠지요. 돼지 모습으로 태어나면 하천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돼지로 사는 습이 또 붙어 가지고 그 습 속에서 영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되기 극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상계에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죠? 아니, 희미하게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한번 소가 돼서 맞아 보고 한번 돼지가 돼서 모가지가 따지는 아픔을 가져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걸 당해 보지 않았다

면 하나도 모를 겁니다. 이론으로만 밝다고 해야 되겠죠. 이론은 아무 데도 쓰잘 것 없어요. 말을 백 마디 천 마디 만 마디 해도 한 번 실천하는 것만 못합니다. 가정에서 살면서, 요 말하기 전에 한마디 더 하고 넘어야하겠군요.

여러분, 들어 안니 도리를 짐작이라도 하시겠습니까? 멀리서 알고도 하지 마시고 내 몸으로부터 알려고 하세요. 내 몸속에 생명체들이, 모습들이, 의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러분 몸이 여러분 몸만이 아니죠? 위장 식도 방광 척추 척추 간장 심장 위 대장 소장, 이 모두를 말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움직이게끔 작용하고 돌아가는 생명체들이 집합해서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몸뚱이는 그네들의 집합소지 아니, 어떻게 나라고 하겠습니까? 커피를 한 잔 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커피 먹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럿이 공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벌었다, 내가 한다, 내가 망했다, 내가 졌다, 내가 살고 있다, 저거는 믿고 나는 착하고, 만날 믿다 이쁘다 하고 상반된 생활을 하면서 돌아가고 이러니까...

묘한 도리가 또 있습니다. 고 마음, 고통에 쓰는 마음이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입력을 해야 되죠. 그죠?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어떠한 말을 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요만한 거 하나 빼놓지 않고 입력이 됩니다.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에 숙명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일 테죠.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보고 듣고 가고 움직이지 않고 오고, 또는 듣는 사이 없이 듣고 아는 사이 없이 알고, 남의 속을 뻔히 다 알고 이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숙명통이라는 게 첨부돼서 전체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컴퓨터처럼 입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된 것이 현실에 솔솔 나오는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4년 3월 27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 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요만한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식화 하고 우리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사 하나를 경영하려고 해도 회장이 없으면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이 없으면 회장이 없고요. 또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 소리를 어떻게 들으며 우리가 나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낫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이 변소에 가도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이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해 드렸죠? 또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요 부처님의 뜻이 내 뜻이요,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부처님한테다 전체 돌리려서 하나로 묶어 놓고 일 배를 올려도 좋지만, 부처님과 더불어 몽땅 내 마음으로 돌리려서 하나로 놓고 일 배를 한다면 우주 전체가, 죽은 세상이 살아있고 일 배로 딱 하나를 먹고 그 떡 하나는 되남는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공양입니다. 공양! 그래서 공양이라고 한 거지 부처님 형상에다가 그냥 바치는 게 공양이 아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생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 전통 범음범패 [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1. 교육과정 (3개월)
  - ◆ 조석예불
  - ◆ 사시불공, 삼보동청, 각단불공
  - ◆ 시달림
2. 중급과정 (3개월)
  - ◆ 바라춤 : 요점(막바라), 화의재, 사다라니
  - ◆ 나바춤 : 사방요신, 도랑계
  - ◆ 49재, 천도의식(시련, 대령, 관육)
  - ◆ 사물 : 태징, 북, 요령, 목탁
3. 연구과정 (6개월) - 초, 중급 이수자에 한함
  - ◆ 가지계,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다계작법, 범고춤, 운심계작법, 괘불이운. [강주 : 지효스님]

2. 개강일시 : 2011년 3월 21일 개강
3.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4. 수강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별도)
5.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대학교 부산서부총무원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 서강빌딩 502호)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총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 접수기간 : 상시
8. 연락처 : 051)442-1818 / Fax 051)442-1817 010-2554-5582 (총무국장)

**한국불교대학교 부산서부총무원**

##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 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시 전금대출, 봉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후우려 가문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신협 회장 이진기님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중숙 010-2543-1037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포항속)